

의안번호	제 2023 - 2호
보 고 연 월 일	2023. 2. 13. (제122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52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검토	2
1. 형종 선택의 기준 검토	2
2. 권고 형량범위 검토	11
3. 서술식 기준 검토	35
4. 양형인자 검토	51
5. 집행유예 기준 검토	67
III.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72
1. 용어 정비	72
2. 정의규정 수정 및 추가	73
3. 전과 관련 문구 수정	76
4. 오류 수정	78
IV. 향후 일정	81

【별첨】

최형준, “교통범죄 양형기준 형량범위, 양형인자”

강선주, 김한울,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최형준, “양형인자 등 정비 방안”

최형준, “양형인자 등 정비 방안(별지)”

강선주,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



I. 제152차 전체회의

1. 일시·장소

- 일시: 2023. 1. 16.(월) 14:30 ~ 18:30
- 장소: 대법원 1605호 회의실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3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강선주, 김한울, 김형찬,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이재신, 최익구, 최준혁, 최형준,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검토(형종 선택의 기준, 권고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II.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 검토

1. 형종 선택의 기준 검토 ⇨ 견해 일치

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

- 2022. 3. 28. 제115차 양형위원회 의결

1.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 각 원칙하에 범죄군별로 설정한다.
2. 벌금형/징역형 선택의 기준을 정하되, 범죄군별로 범죄의 특성, 법정형,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3. 벌금형 권고 형량은 종전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영역별로 정하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법정형이 상향된 범죄 등에서는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더한다.
4.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은 추후 양형 실무의 축적 경위와 내용, 빈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 설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5.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구공판 사건,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공판절차회부 사건 및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적용하되, 추후 약식절차와 즉결심리절차의 양형심리 방식 개선 상황, 양형자료조사 인력의 확충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적용 범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6. 벌금형 양형기준은 우선 교통범죄에 대하여 설정하고, 추후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설정 대상 범죄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간다.

나. 방안

- 감경/기본/가중의 3단계 권고 영역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① ‘벌금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 ② ‘벌금형 또는 자유형의 선택을 권고하는 영역’, ③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을 제시
 - 권고 형량범위표를 통하여 ① 벌금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이하 ‘벌금형 영역’), ② 벌금형 또는 자유형의 선택을 권고하는 영역(이하 ‘벌금형/자유형 영역’), ③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이하 ‘자유형 영역’)을 구분·제시하는 방안
 - 현행 양형기준 중 유일하게 벌금형 양형기준이 존재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상 형종 선택의 기준과 유사함
 - 선거범죄 양형기준 역시 권고 형량범위표를 통하여 ① 벌금형 영역[ex)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감경영역 등], ② 벌금

형/자유형 영역[ex) '1. 매수 및 이해유도'의 1 내지 4 유형의 감경영역 등] 및 ③ 자유형 영역[ex) '1. 매수 및 이해유도'의 1 내지 4 유형의 기본영역 및 가중영역 등]을 구분·제시함

[참고] 선거범죄 양형기준 중 대유형 1 내지 3

01¹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당내경선 관련 매수	- 8월, 50만 원 - 500만 원	4월 - 1년	8월 - 2년
2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10월, 100만 원 - 1,500만 원	6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3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4월 - 1년, 150만 원 - 2,0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4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6월 - 1년4월, 500만 원 - 2,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4년
5	당선인에 대한 매수	8월 - 1년6월	1년 - 3년	2년6월 - 5년

02¹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기부행위	50만 원 - 300만 원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8월 - 2년

03¹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후보자비방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300만 원	6월 - 1년, 250만 원 - 400만 원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70만 원 - 300만 원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3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8월, 300만 원 - 600만 원	6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1년 - 3년

■ 다만 적절한 서술식 기준을 추가 제시함으로써 선거범죄 양형기준과

같은 방식의 형종 선택의 기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 보완

- 선거범죄 양형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형종 선택의 기준을 만들 경우, ① 특정 형종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양형에 이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② 자유형/벌금형 영역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교통범죄의 특수성,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서술식 기준을 추가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고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 예시

① 대유형1(교통사고) 중 중유형1(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벌금형 / 금고형	벌금형 / 금고형	금고형
2	교통사고 치사	벌금형 / 금고형	금고형	금고형

▶ 서술식 기재

- 예를 들어 금고형의 선택만이 권고되는 소유형1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 중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

② 대유형3(음주·무면허운전) 중 소유형1(무면허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벌금형	벌금형 / 징역형	벌금형 / 징역형

▶ 서술식 기재

- 예를 들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이 권고되는 기본영역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 중 '5/10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종 전과'라는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선택을 권고하는 내용

■ 사례 적용

○ 사례1

- 사안: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동종 누범
- 적용: 가중영역에 해당 → 가중영역에서는 금고형의 선택만 권고
☞ 만약 법관이 벌금형을 선택하면 양형기준 이탈에 해당

○ 사례2

- 사안: 무면허운전, 범행 이전 '5/10년 이내에 3번에 걸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양형인자 없음
- 적용: 기본영역에 해당 → 기본영역에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을 권고하고 있으나 서술식 기재를 통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권고 ☞ 만약 법관이 벌금형을 선택하면 양형기준 이탈에 해당

다. 논거

■ 제시안은 양형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법관의 합리적 양형재량 보장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룸

- 그동안 형종 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에 맡겨져 있었으나, '벌금형 영역', '벌금형/자유형 영역', '자유형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양형재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로 높일 수 있음
- 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된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실현하여야 하는 점, 형벌 감수성의 측면에서 자유형이 언제나 벌금형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예를 들어 경제력이 부족한 피고

인의 경우 벌금 1,000만 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반드시 가벼운 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벌금형/자유형 영역 제시는 불가피함. 다만 이때에도 서술식 기준을 통하여 특정한 양형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형종을 선택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양형의 예측 가능성 확보

- 검찰사건처리기준(별지1)에서도 ‘벌금형/자유형 영역’을 두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불가피한 사정들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벌금형/자유형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서술식 기준을 통하여 특정한 양형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정 형종을 선택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양형의 예측 가능성 확보
-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한 결과,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택이 가능한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13세 미만 대상 강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실형을 권고하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 양형실무에 부합하여 벌금형 양형기준제의 안정적 정착에 긍정적 효과 기대됨

- 형법은 다음과 같이 양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형종 선택과 형량범위 결정을 포함하는 것임 → 양형의 조건은 양형인자에 반영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법관의 실제 양형 과정에서 형종 선택의 과정과 형량범위 결정 과정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즉 각각의 인자를 별도로

- 추출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음), 오히려 당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종 및 형량을 결정
- 권고 형량범위표상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면, 실제 양형의 과정뿐 아니라 그동안 양형기준제 시행을 통해 형성된 양형실무와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별금형 양형기준제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임
 - 제시안은 선거범죄 양형기준에서의 형종 선택의 기준 방식을 토대로 그 단점을 보완한 것임.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2012. 9. 1.부터 약 10년간 시행되어 왔고, 형종 선택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운영되어 실무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되는 만큼, 선거범죄 양형기준에서의 형종 선택의 기준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별도의 형종 선택의 기준 제시 방안은 많은 문제점이 내포됨

- 권고 형량범위표에 형종 선택의 기준을 포섭시키지 않고 형종 선택 단계에서 고려되는 양형인자를 따로 추출하여 별도의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 예상됨

① 양형실무와의 부조화

- 앞서 본 대로, 법관의 실제 양형 과정에서 형종 선택의 과정과 형량범위 결정 과정이 명확하게 분리된다고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양형기준에서 형종 선택의 과정과 형량범위 결정 과정을 분리하는 경우 실제 양형과 동떨어진 인위적·관념적 기준에 그칠 수 있고, 이는 별금형 양형기준제의 안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② 불필요한 이중의 평가 절차 추가

- 기존에 양형기준에 설정된 양형인자는 양형실무에 대한 면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자의 의사, 국민의 양형인식, 양형정책적 목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추출된 것이고, 형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존에 추출된 양형인자와 무관한 전혀 새로운 인자가 고려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형종 선택 단계에서 고려할 양형인자를 따로 추출하여 형종 선택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형량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인자와 대부분 겹치게 되어 불필요한 이중의 평가절차를 거치게 됨

③ 현행 양형기준의 장점 퇴색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적용상 편이, 양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양형기준의 역할을 법정형이 아닌 처단형을 세분화하는 데 두고, 법관이 인정한 양형인자에 따라 곧바로 권고 형량범위(적합한 처단형)가 제시되는 형태의 매우 직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
- 양형기준의 적용 과정에 형종 선택의 단계를 별도로 추가하면 적용 과정이 복잡해지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양형을 예측하기 어려워짐. 반면 별도의 형종 선택의 기준 제시안이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자유형/벌금형 영역에서 적용되는 별도의 형종 선택의 기준을 두는 방안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 자유형/벌금형 영역에서 적용되는 형종 선택의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① 형량범위표 적용을 위한 양형인자 확정 → ② 양형인자 평가 원칙을 적용한 권고 영역 결정 → ③ 권고 영역상 벌금형 또는 자유형을 권고할 경우 형종 선택의 기준 적용을 위한 양형인자 확정 → ④ 형종 선택의 기준 적용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앞서 살펴본 별도의 형종 선택의 기준 제시 방안과 유사한 문제 발생
- 형종 선택과 형량 결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양자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① 권고 영역을 정하기 위한 양형인자의 평가원칙과 ② 벌금형/자유형 영역에서 다시 적용할 형종 선택의 기준 사이에 차별화 어려움
- 벌금형/자유형 영역에서 다시 적용할 형종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

다면, 그 안에서 다시 ① 벌금형 영역, ② 벌금형/자유형 영역, ③ 자유형 영역으로 구분될 것임. 즉 정도의 차이일 뿐 여전히 벌금형/자유형 영역이 남을 수밖에 없어 형종 선택의 기준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음

- 오히려 벌금형의 경우 형벌 감수성의 측면에서 반드시 자유형(특히 자유형의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형이 아니므로, 벌금형/자유형 영역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려는 시도는 자칫 벌금형 양형기준을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지침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음 (집행유예 기준은 형벌 감수성의 측면에서 형의 경중이 비교적 뚜렷한 '자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우에도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중첩 영역을 허용함)

■ 영국의 음주운전에 관한 양형기준(별지2)

- 개별 범죄군별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양형기준과 유사
-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 사회형¹⁾ > 구금형 순서로 선택할 수 있음을 정하되, 일응 사회형의 최소 기준을 넘었어도 그보다 벌금형으로 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하면,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권고
- 별도의 형종 선택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권고영역의 구분으로만 제시

라. 형종 선택의 기준 구체화

■ 형종 선택의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함

- 자유형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징역(또는 금고) 3년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
 - 노역장 유치기간의 상한이 3년이고(형법 제69조 제2항), 징역형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집행유예도 불가함(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외출 제한, 수강 등 일정한 의무를 사회 안에서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처벌이고, 불이행하면 의무 내용을 바꾸거나, 구금형으로도 변경할 수 있음

- 양형기준에서 3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을 권고하는 사안은 결국 실형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후술하는 대로 교통범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음
-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형의 선택을 권고하되, 법정형, 불법과 책임의 정도 등 당해 범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도 권고함
-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대부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자유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위해서는, 무면허운전(징역 1년 이하)과 같이 가중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징역형의 권고 형량이 높지 않고 벌금형으로도 책임에 비례한 형벌 부과가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선택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즉 예외적으로 일부 가중영역에서 벌금형/자유형 영역을 둠
- 가중영역에 해당하면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
- 가중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자유형의 선택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중영역 상한의 특별 조정이 가능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을 감안하여 자유형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형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 기대
- 해당되는 유형의 서술식 기준에 반영함
- 특정 형종의 선택만을 권고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양형 실무상 형종 선택 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형종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형종의 선택만이 권고되는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교통범죄의 특수성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양형실무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다른 형종의 선택도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무면허운전의 감경영역에서 벌금형만을 권고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양형실무상 피고인이 만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때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와 같이 양형실무상 형종 선택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요소가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형종의 선택을 허용하는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 도모

2. 권고 형량범위 검토

가. 벌금액 산정 방법

- 법제 실무는 법정형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라 가감하는 것으로 보임
- 교통사고 범죄의 경우 위와 같은 법제 실무를 반영하여 일응 징역 또는 금고 1년당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양형통계를 반영하여 적절히 가감하는 방법으로 설정함
- 다만,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관계가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으므로, 양형통계를 반영하여 설정함

나. 제1유형(교통사고) ⇨ 견해 일치

(1) 일반 교통사고 ⇨ 견해 일치

(가) 현행 형종 및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나) 금고형 권고 형량범위 ⇨ 견해 일치

■ 수정 필요성 없음

- 현행 양형기준은 2020. 7. 1. 수정 시행되었고, 시행 후 2년밖에 경과하지 않음
-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2)에 의하면, 위 수정시행 이후 일반 교통사고의 형량분포는 다음과 같고, 교통범죄 준수율 91.1%로 높음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4	5	6	8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26	30		36
제1 유형	수	57	8	144	91	40	224	74	17	22	85	4	1	3	37	2	3	-	812
	비율	7.0	1.0	17.7	11.2	4.9	27.6	9.1	2.1	2.7	10.5	0.5	0.1	0.4	4.6	0.2	0.4	-	100.0
제2 유형	수	8	-	48	64	44	49	5	-	-	11	1	-	-	3	-	1	1	235
	비율	3.4	-	20.4	27.2	18.7	20.9	2.1	-	-	4.7	0.4	-	-	1.3	-	0.4	0.4	100.0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규범력 검토

- 현행 양형기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징역 2년)보다 권고 형량범위가 낮아 양형기준 규범력 약화 문제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통사고 치상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를 양형인자로만 취급 →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8월 - 2년) 적용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통사고 치사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를 양형인자로만 취급 → 교통사고 치사의 가중영역(1년 - 3년) 적용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 형량범위를 새로 설정하는 경

2)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20년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이하 같다) I 권 91쪽

우 다음과 같이 다수범 가중 → 규범력 담보 가능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통사고 치상
 - 형량범위표 - 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년),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 기본영역(1년6월 - 3년)
 - 음주운전의 형량범위 상한 3년 + 교통사고 치상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6월(1년 × 1/2) = 3년6월 ⇨ 1년6월 - 3년6월
 - 기존 ‘8월 - 2년’ → ‘1년6월 - 3년6월’ 로 상향
 -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5년까지 가능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교통사고 치사
 - 형량범위표 - 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8월 - 2년),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 기본영역(1년6월 - 3년)
 - 음주운전의 형량범위 상한 3년 + 교통사고 치사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1년(2년 × 1/2) = 4년 ⇨ 1년6월 - 4년
 - 기존 ‘1년 - 3년’ → ‘1년6월 - 4년’ 으로 상향
 -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5년6월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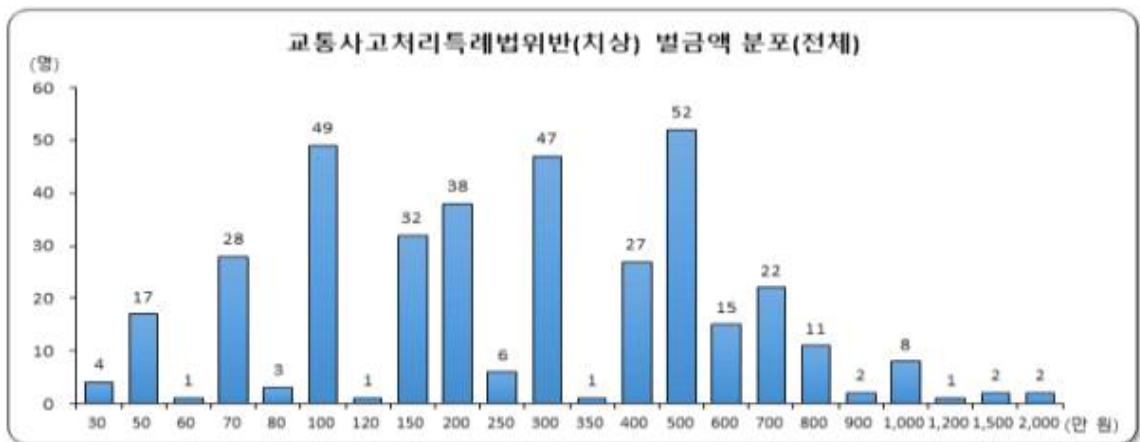
(다) 교통사고 치상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 **견해 일치**

○ 통계

단위: 명, %, 만 원

선고연도		벌금액(만 원)											
		30	50	60	70	80	100	120	150	200	250	300	350
2019년	수	1	5	-	8	1	13	-	13	10	1	13	-
	비율	1.0	5.0	-	7.9	1.0	12.9	-	12.9	9.9	1.0	12.9	-
2020년	수	1	4	1	10	1	19	1	10	15	2	19	1
	비율	0.8	3.0	0.8	7.5	0.8	14.3	0.8	7.5	11.3	1.5	14.3	0.8
2021년	수	2	8	-	10	1	17	-	9	13	3	15	-
	비율	1.5	5.9	-	7.4	0.7	12.6	-	6.7	9.6	2.2	11.1	-
전체	수	4	17	1	28	3	49	1	32	38	6	47	1
	비율	1.1	4.6	0.3	7.6	0.8	13.3	0.3	8.7	10.3	1.6	12.7	0.3

선고연도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2,000		
2019년	수	9	15	3	4	3	1	1	-	-	-	101	300.20
	비율	8.9	14.9	3.0	4.0	3.0	1.0	1.0	-	-	-	100.0	
2020년	수	10	17	6	8	4	-	4	-	-	-	133	323.61
	비율	7.5	12.8	4.5	6.0	3.0	-	3.0	-	-	-	100.0	
2021년	수	8	20	6	10	4	1	3	1	2	2	135	379.56
	비율	5.9	14.8	4.4	7.4	3.0	0.7	2.2	0.7	1.5	1.5	100.0	
전체	수	27	52	15	22	11	2	8	1	2	2	369	337.67
	비율	7.3	14.1	4.1	6.0	3.0	0.5	2.2	0.3	0.5	0.5	100.0	



○ 벌금형 중첩 영역의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교통사고 치상	- 8월	4월 - 1년	8월 - 2년	5년 ↓ 2,000만 원 ↓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 교통범죄는 벌금형 설정여부가 문제되는 영역에서 징역형(금고형 포함) 형량범위 하한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음
- 권고영역이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의 선택을 권고하지 아니함
- 상해의 결과가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경상부터 중상까지 스펙트럼이 넓고, 사망의 결과가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스펙트럼이 좁음 → 상해의 결과가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사망의 결과가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넓은 권고영역에 벌금형 설정

- 양형자료조사³⁾ 결과는 다음과 같고, 벌금형 양형통계의 스펙트럼이 넓은 경우 넓은 권고영역에 벌금형 중첩 설정
 - 교통사고 치상: 30만 원~2,000만 원 분포, 100만 원~1,000만 원에 전체의 84.3% 분포⁴⁾
 - 교통사고 치사: 300만 원~2,000만 원 분포, 500만 원~1,000만 원에 전체의 82.5% 분포
- 다만,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에서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과 합의한 경우 등에서 벌금형 선택의 필요성 있음
 - 서술식 기준으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일반 교통사고 형량범위 표 아래에 서술식 기준 부기) → 이하 3.에서 검토함

○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1,200만 원	8월 - 2년

- 앞서 본 벌금형 산정방법에 따라 일응 금고 1년당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양형통계를 반영하여 적절히 가감함
- 감경영역에 대부분의 통계사안이 포섭 → 벌금형을 선택한 사안은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이 많아 대부분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음

(라) 교통사고 치사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 견해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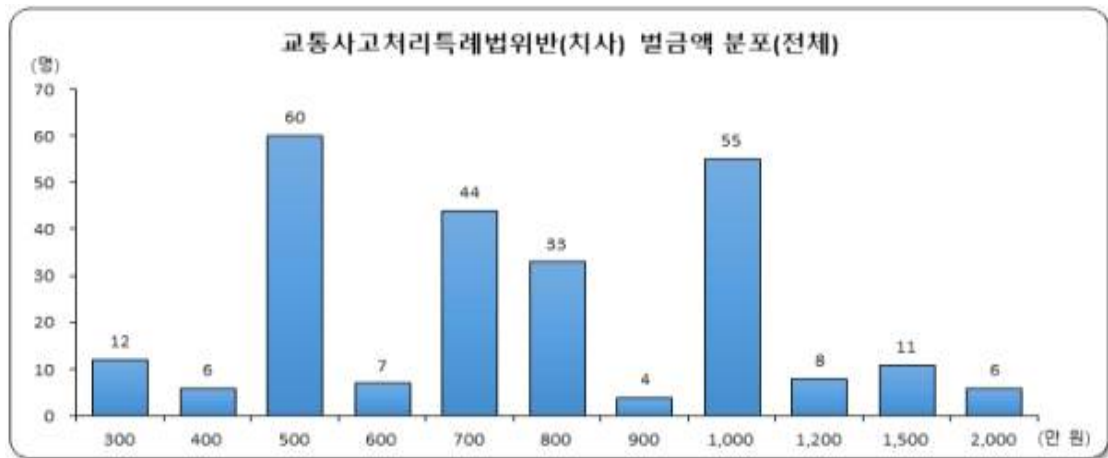
○ 통계

3) 양형위원회,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선고된 교통범죄의 단일 및 동종경합범 대상

4)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 80%를 반영하여 전형적 사건에 대해 형량범위를 설정함(2022 양형기준 776쪽)

단위: 명, %, 만 원

선고연도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500	2,000		
2019년	수	3	2	21	1	9	5	2	20	2	2	-	67	750.75
	비율	4.5	3.0	31.3	1.5	13.4	7.5	3.0	29.9	3.0	3.0	-	100.0	
2020년	수	7	2	18	3	19	13	-	24	4	4	3	97	806.19
	비율	7.2	2.1	18.6	3.1	19.6	13.4	-	24.7	4.1	4.1	3.1	100.0	
2021년	수	2	2	21	3	16	15	2	11	2	5	3	82	800.00
	비율	2.4	2.4	25.6	3.7	19.5	18.3	2.4	13.4	2.4	6.1	3.7	100.0	
전체	수	12	6	60	7	44	33	4	55	8	11	6	246	789.02
	비율	4.9	2.4	24.4	2.8	17.9	13.4	1.6	22.4	3.3	4.5	2.4	100.0	



○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의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4월 - 1년)는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의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와 동일 → 불법의 정도를 유사하게 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500만 원 - 1,200만 원)를 기준으로 하되, 양형통계 및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한을 약간 높임

(2) 위험운전 교통사고 ⇨ 견해 일치

(가) 현행 형종 및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나)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 ⇨ 견해 일치

▣ 수정 필요성 없음

- 위험운전 교통사고는 2020. 7. 1. 신규 설정된 것으로 시행 후 2년밖에 경과하지 않음
-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에 의하면, 위 수정시행 이후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형량분포는 다음과 같음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6	8	10	12	14	15	16	18	20	22	24	26	28	30	36	84	
제1 유형	수	17	29	36	210	80	10	35	99	3	2	77	2	2	9	1	-	612
	비율	2.8	4.7	5.9	34.3	13.1	1.6	5.7	16.2	0.5	0.3	12.6	0.3	0.3	1.5	0.2	-	100.0
제2 유형	수	-	-	-	-	1	-	-	1	-	1	1	-	-	-	-	1	5
	비율	-	-	-	-	20.0	-	-	20.0	-	20.0	20.0	-	-	-	-	20.0	100.0

(다)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 견해 일치

- 단일범죄 표본 1,000만 원 2건, 1,200만 원 1건 총 3건만 있음
- 벌금형 중첩 영역의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1년~15년/ 1,000만 원~3,000만 원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무기 또는 3년↑

- 2유형은 법정형에 벌금형 없어 설정대상 제외
- 법정형이 더 낮은 교통사고 치사도 감경영역만 벌금형 중첩 설정하였으므로, 1유형은 감경영역에만 벌금형 중첩 설정

- 위험운전 치상 기본영역에서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서 벌금형 선택의 필요성
- 서술식 기준으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위험운전 교통사고 형량 범위표 아래에 서술식 기준 부기) → 이하 3.에서 검토함

○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 앞서 본 벌금형 산정방법에 따라 일응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양형통계를 반영하여 적절히 가감함

(3) 어린이 교통사고 ⇨ 견해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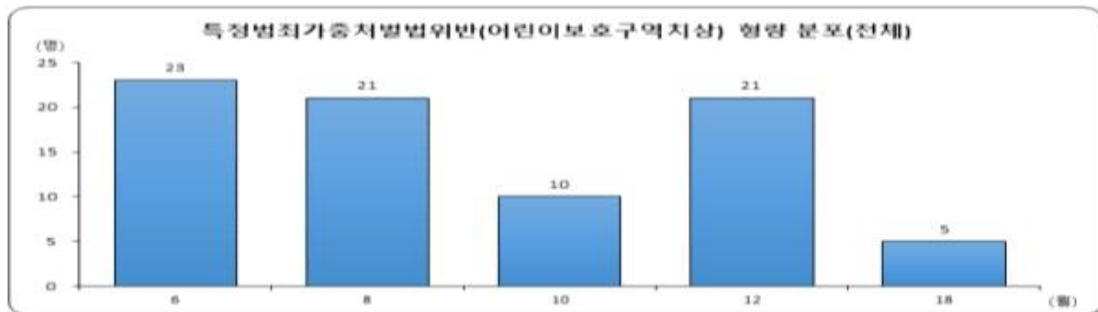
(가)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 견해 일치

■ 어린이 치상

○ 통계

단위: 명, %, 월

세부 죄명	선고 연도		형량(월)							전체	평균
			6	8	10	12	18	24	36		
어린이 보호구 역 치상	2020년	수	6	3	-	1	-	-	-	10	7.20
		비율	60.0	30.0	-	10.0	-	-	-	100.0	
	2021년	수	15	14	7	15	3	-	-	54	9.37
		비율	27.8	25.9	13.0	27.8	5.6	-	-	100.0	
	2022년	수	2	4	3	5	2	-	-	16	10.63
		비율	12.5	25.0	18.8	31.3	12.5	-	-	100.0	
	전체	수	23	21	10	21	5	-	-	80	9.35
		비율	28.8	26.3	12.5	26.3	6.3	-	-	100.0	



○ 검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 위험운전 치상과 징역형 법정형(1년 이상 15년 이하) 동일
- 같은 범죄군 내에 법정형 동일한 범죄와 다르게 불만한 사정 없음

■ 어린이 치사

- 통계 - 징역 2년 1건, 징역 3년 2건
- 검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어린이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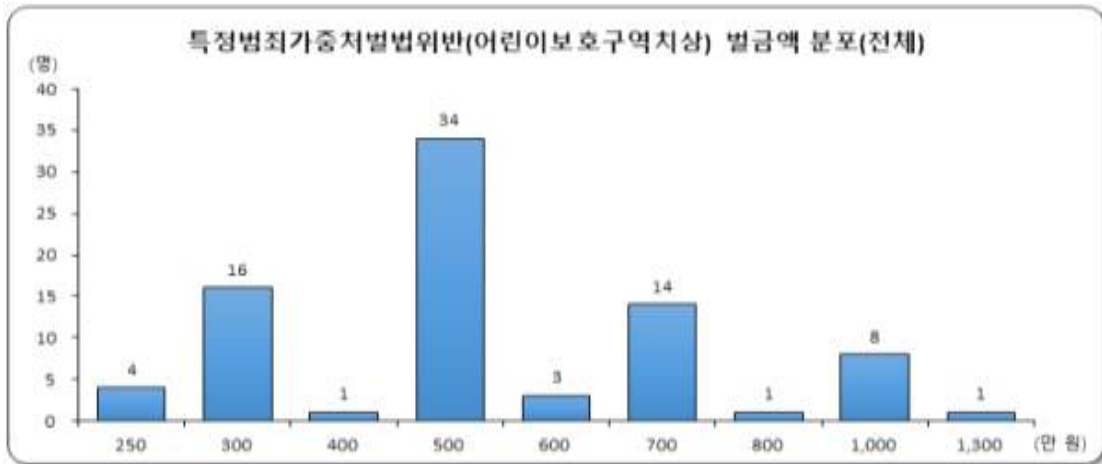
- 위험운전 치사와 징역형 법정형(무기 또는 3년 이상) 동일
- 같은 범죄군 내에 법정형 동일한 범죄와 다르게 불만한 사정 없음

(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어린이 치상) ⇨ 견해 일치

■ 통계

단위: 명, %, 만 원

세부 죄명	선고 연도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250	300	400	500	600	700	800	1,000	1,300		
어린이 보호구 역 치상	2020 년	수	-	-	-	4	1	2	-	1	-	8	625.00
		비율	-	-	-	50.0	12.5	25.0	-	12.5	-	100.0	
	2021 년	수	1	14	1	22	1	11	1	4	1	56	540.18
		비율	1.8	25.0	1.8	39.3	1.8	19.6	1.8	7.1	1.8	100.0	
	2022 년	수	3	2	-	8	1	1	-	3	-	18	536.11
		비율	16.7	11.1	-	44.4	5.6	5.6	-	16.7	-	100.0	
	전체	수	4	16	1	34	3	14	1	8	1	82	547.56
		비율	4.9	19.5	1.2	41.5	3.7	17.1	1.2	9.8	1.2	100.0	



■ 검토

○ 벌금형 중첩영역의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5년	1년~15년/ 500만 원~3,000만 원
2	어린이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무기 또는 3년 ↑

- 2유형은 법정형에 벌금형 없어 설정 대상 제외
- 법정형이 더 낮은 교통사고 치사도 감경영역만 벌금형 중첩 설정하였으므로, 1유형은 감경영역에만 벌금형 중첩 설정
- 어린이 치상 기본영역에서 피해자에게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벌금형 선택의 필요성
- 서술식 기준으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어린이 교통사고 형량범위표 아래에 서술식 기준 부기) → 이하 3.에서 검토함

○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 위험운전 치상(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보다 법정형 하한이 1/2 낮으므로 위험운전 치상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700만 원 - 1,500만 원)보다 하한만 낮게 설정

다. 제2유형(교통사고 후 도주) ⇨ 견해 일치

(1) 현행 형종 및 형량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8월 - 2년6월	1년 - 5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8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10년

(2)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 견해 일치

-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에 의하면, 양형기준 수정시행 이후 교통 사고 후 도주의 형량분포는 다음과 같음(2유형은 사례 없음)

단위: 명, %

유형		형량(월)																		전체	
		6	8	10	12	14	15	16	18	20	22	24	26	30	36	42	48	60	84		108
제1 유형	수	39	45	29	142	21	4	14	85	3	2	35	2	8	1	-	-	-	-	-	430
	비율	9.1	10.5	6.7	33.0	4.9	0.9	3.3	19.8	0.7	0.5	8.1	0.5	1.9	0.2	-	-	-	-	-	100.0
제3 유형	수	-	-	-	-	-	-	-	-	-	-	1	-	6	5	2	2	3	1	-	20
	비율	-	-	-	-	-	-	-	-	-	-	5.0	-	30.0	25.0	10.0	10.0	15.0	5.0	-	100.0
제4 유형	수	-	-	-	-	-	-	-	-	-	-	-	-	-	-	-	-	-	-	1	1
	비율	-	-	-	-	-	-	-	-	-	-	-	-	-	-	-	-	-	-	100.0	100.0
전체	수	39	45	29	142	21	4	14	85	3	2	36	2	14	6	2	2	3	1	1	451
	비율	8.6	10.0	6.4	31.5	4.7	0.9	3.1	18.8	0.7	0.4	8.0	0.4	3.1	1.3	0.4	0.4	0.7	0.2	0.2	100.0

■ 치상 후 도주(1유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8월 10월 - 2년6월	1년 - 5년 - 2년 - 6년

- 위험운전 치상(법정형 1년 ↑ 15년 ↓)과 치상 후 도주(법정형 1년

↑)의 형량범위 역전 문제

- 위험운전 치상(감경: 6월 - 1년6월, 기본: 10월 - 2년6월, 가중: 2년 - 5년)의 형량범위에 비추어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 상향(8월 - 2년6월 ⇨ 10월 - 2년6월), 가중영역 상향(1년 - 5년 ⇨ 2년 - 6년)

■ 치사 후 도주(3유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6년	4년 - 8년 5년 - 10년

- 치사 후 도주(무기, 5년↑)는 위험운전 치사(무기, 3년↑) 및 어린이 치사(무기, 3년↑)의 법정형보다 더 높음에도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일부 상향 필요

■ 치사 후 유기도주(4유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치사 후 유기도주 (유기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7년	5년 - 10년 6년 - 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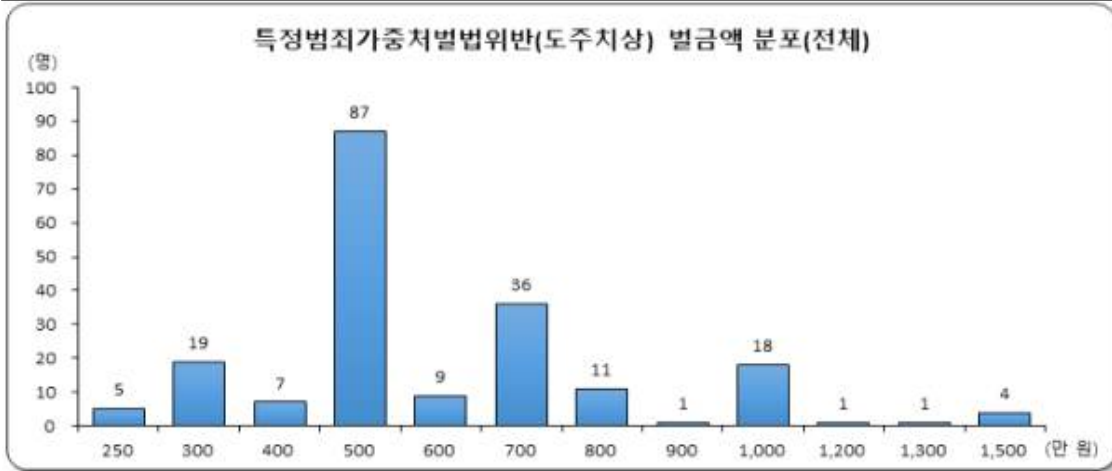
- 치사 후 유기 도주(사형, 무기, 5년↑)는 살인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상향할 필요
- 과실범인 위험운전 치사, 어린이 치사에 비해 고의범인 치사 후 도주의 행위 불법이 더 높고, 구호조치를 취했다라면 살 수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 초래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그 결과에 대해 더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

(3)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치사 후 도주) ⇨ 견해 일치

■ 통계

단위: 명, %, 만 원

선고 연도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1,300	1,500		
2019 년	수	1	5	2	16	2	4	2	-	4	-	-	-	36	559.72
	비율	2.8	13.9	5.6	44.4	5.6	11.1	5.6	-	11.1	-	-	-	100.0	
2020 년	수	3	8	2	40	4	14	4	1	7	-	1	2	86	599.42
	비율	3.5	9.3	2.3	46.5	4.7	16.3	4.7	1.2	8.1	-	1.2	2.3	100.0	
2021 년	수	1	6	3	31	3	18	5	-	7	1	-	2	77	627.92
	비율	1.3	7.8	3.9	40.3	3.9	23.4	6.5	-	9.1	1.3	-	2.6	100.0	
전체	수	5	19	7	87	9	36	11	1	18	1	1	4	199	603.27
	비율	2.5	9.5	3.5	43.7	4.5	18.1	5.5	0.5	9.0	0.5	0.5	2.0	100.0	



■ 검토

○ 벌금형 중첩 영역의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6년	1년↑/ 500만 원~3,000만 원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10년	무기 또는 5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7년	6년 - 12년	사형, 무기 또는 5년↑

- 2, 3, 4유형은 법정형에 벌금형 없어 설정대상 제외

- 법정형이 더 낮은 교통사고 치사도 감경영역만 벌금형 중첩 설정하였으므로, 1유형은 감경영역에만 벌금형 중첩 설정
-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서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서 벌금형 선택의 필요성
- 서술식 기준으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교통사고 후 도주 형량범위표 아래에 서술식 기준 부기) → 이하 3.에서 검토함

○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 어린이 치상과 벌금형 법정형(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동일
- 같은 범죄군 내에 법정형 동일한 범죄와 다르게 불만한 사정 없음

라. 제3유형(음주·무면허운전) ⇨ 견해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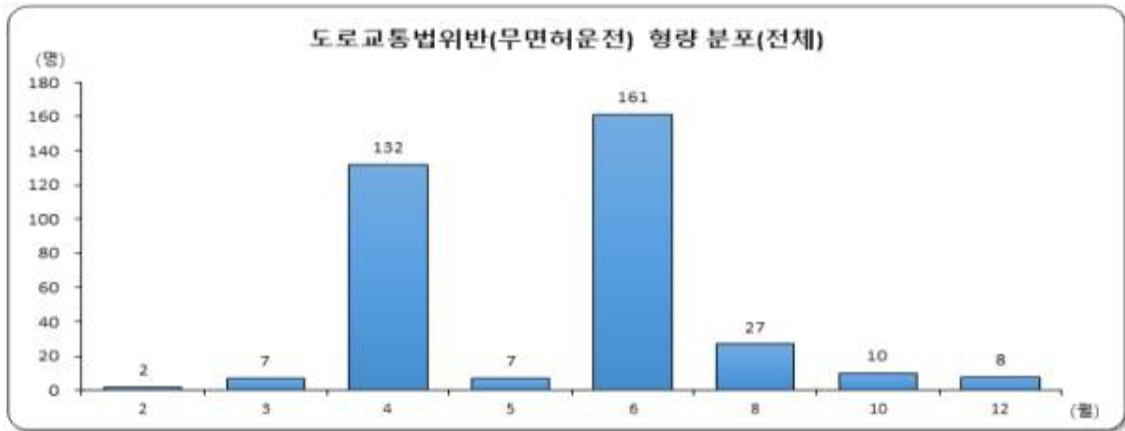
(1)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 견해 일치

(가) 통계

○ 무면허운전

단위: 명, %,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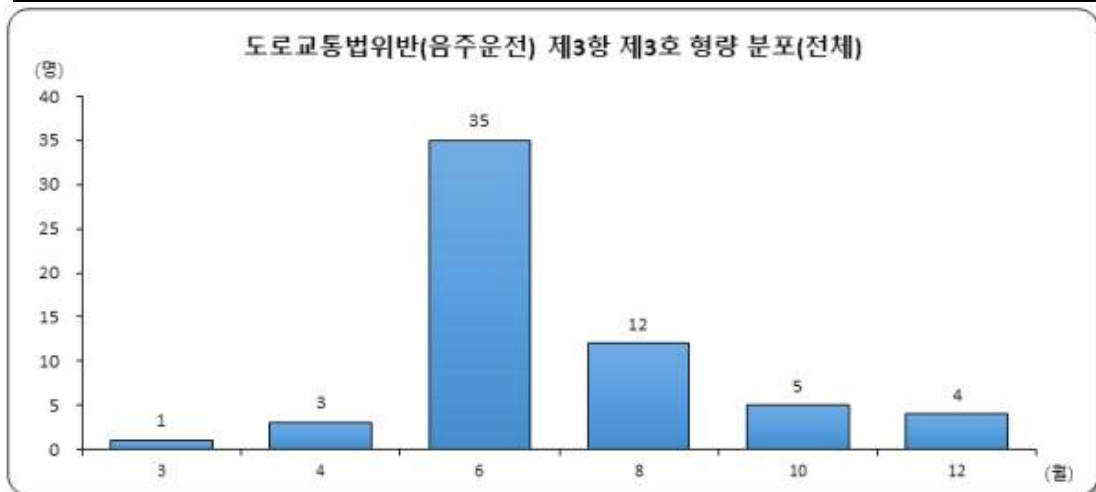
선고 연도		형량(월)								전체	평균
		2	3	4	5	6	8	10	12		
2019년	수	1	3	63	3	71	14	4	1	160	5.43
	비율	0.6	1.9	39.4	1.9	44.4	8.8	2.5	0.6	100.0	
2020년	수	-	1	41	4	53	7	4	5	115	5.75
	비율	-	0.9	35.7	3.5	46.1	6.1	3.5	4.3	100.0	
2021년	수	1	3	28	-	37	6	2	2	79	5.53
	비율	1.3	3.8	35.4	-	46.8	7.6	2.5	2.5	100.0	
전체	수	2	7	132	7	161	27	10	8	354	5.55
	비율	0.6	2.0	37.3	2.0	45.5	7.6	2.8	2.3	100.0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이하 '3호 음주운전')

단위: 명, %,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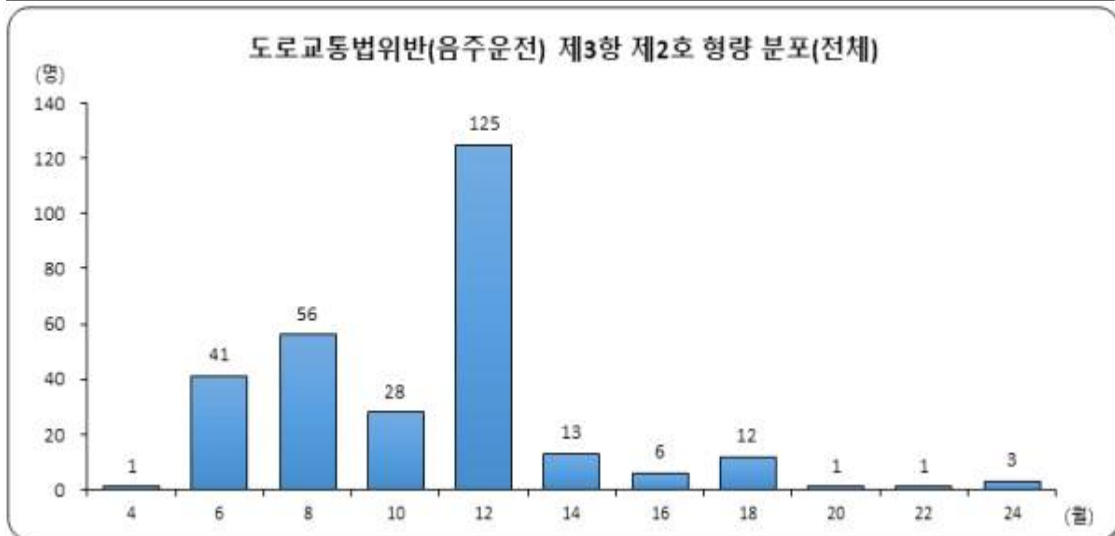
선고연도		형량(월)						전체	평균
		3	4	6	8	10	12		
2019년	수	-	1	-	-	-	-	1	4.00
	비율	-	100.0	-	-	-	-	100.0	
2020년	수	1	-	7	2	2	1	13	7.15
	비율	7.7	-	53.8	15.4	15.4	7.7	100.0	
2021년	수	-	2	28	10	3	3	46	7.00
	비율	-	4.3	60.9	21.7	6.5	6.5	100.0	
전체	수	1	3	35	12	5	4	60	6.98
	비율	1.7	5.0	58.3	20.0	8.3	6.7	100.0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이하 '2호 음주운전')

단위: 명, %,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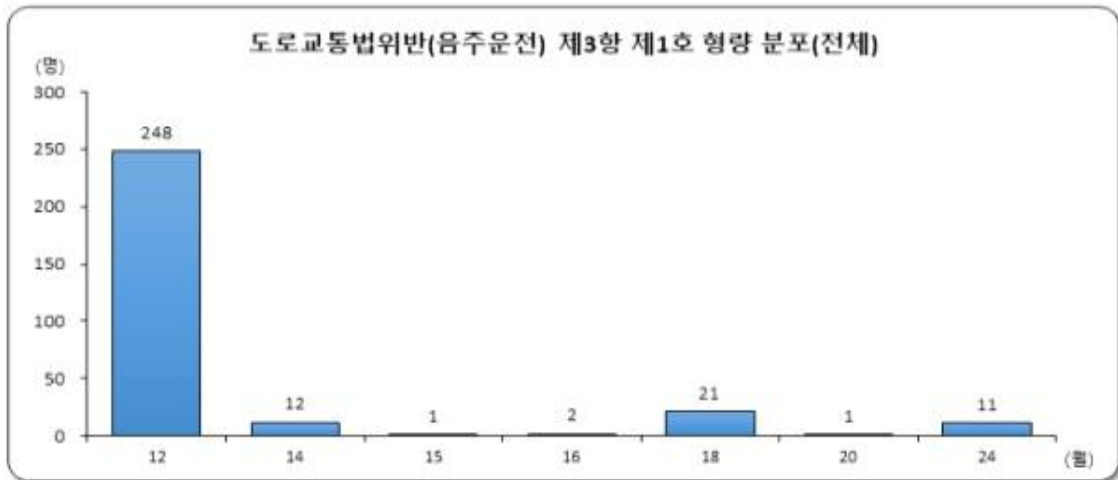
선고연도		형량(월)											전체	평균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019년	수	-	4	6	2	6	1	-	2	-	-	-	21	10.19
	비율	-	19.0	28.6	9.5	28.6	4.8	-	9.5	-	-	-	100.0	
2020년	수	-	19	19	5	16	2	-	3	-	-	1	65	9.45
	비율	-	29.2	29.2	7.7	24.6	3.1	-	4.6	-	-	1.5	100.0	
2021년	수	1	18	31	21	103	10	6	7	1	1	2	201	11.23
	비율	0.5	9.0	15.4	10.4	51.2	5.0	3.0	3.5	0.5	0.5	1.0	100.0	
전체	수	1	41	56	28	125	13	6	12	1	1	3	287	10.75
	비율	0.3	14.3	19.5	9.8	43.6	4.5	2.1	4.2	0.3	0.3	1.0	100.0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1호 음주운전')

단위: 명, %,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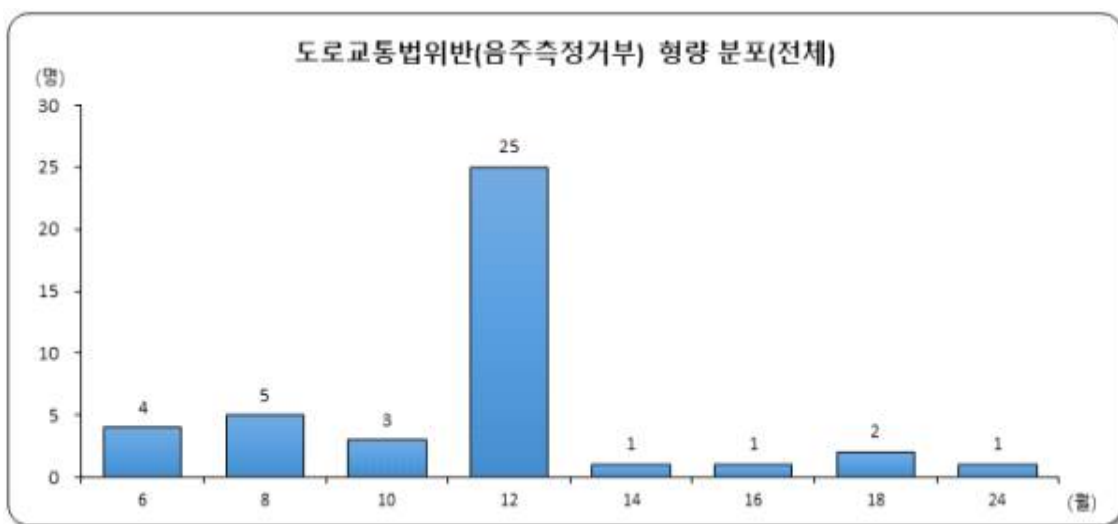
선고연도		형량(월)							전체	평균
		12	14	15	16	18	20	24		
2019년	수	25	1	-	1	1	-	1	29	12.83
	비율	86.2	3.4	-	3.4	3.4	-	3.4	100.0	
2020년	수	107	4	-	1	3	-	1	116	12.36
	비율	92.2	3.4	-	0.9	2.6	-	0.9	100.0	
2021년	수	116	7	1	-	17	1	9	151	13.56
	비율	76.8	4.6	0.7	-	11.3	0.7	6.0	100.0	
전체	수	248	12	1	2	21	1	11	296	13.02
	비율	83.8	4.1	0.3	0.7	7.1	0.3	3.7	100.0	



○ 음주측정거부

단위: 명, %, 월

선고 연도		형량(월)								전체	평균
		6	8	10	12	14	16	18	24		
2019년	수	-	1	1	5	-	-	1	-	8	12.00
	비율	-	12.5	12.5	62.5	-	-	12.5	-	100.0	
2020년	수	1	3	1	8	1	-	-	-	14	10.71
	비율	7.1	21.4	7.1	57.1	7.1	-	-	-	100.0	
2021년	수	3	1	1	12	-	1	1	1	20	11.90
	비율	15.0	5.0	5.0	60.0	-	5.0	5.0	5.0	100.0	
전체	수	4	5	3	25	1	1	2	1	42	11.52
	비율	9.5	11.9	7.1	59.5	2.4	2.4	4.8	2.4	100.0	



(나) 검토

■ 징역형 영역의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무면허운전				1년 ↓ / 300만 원 ↓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 / 500만 원 ↓
3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 2년 ↓ / 500만 원 ↑ 1,000만 원 ↓
4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 ↑ 5년 ↓ / 1,000만 원 ↑ 2,000만 원 ↓
5	음주측정거부				1년 ↑ 5년 ↓ / 500만 원 ↑ 2,000만 원 ↓

- 무면허운전(1유형)과 3호 음주운전(2유형)은 법정형(징역 1년 이하)이 낮아 감경영역은 벌금형만 설정
- 다만, 위와 같이 벌금형 권고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서술형 기준으로 형종 선택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음주·무면허운전 형량범위표 아래에 서술식 부기) → 이하 3.에서 검토함
- 나머지 유형은 법정형이 비교적 중하므로 모든 영역에 징역형 설정

■ 징역형 권고 형량범위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 8월	6월 - 10월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8월	6월 - 10월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8월 - 1년4월	1년 - 1년10월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8월 - 2년	1년6월 - 4년

- 무면허운전(1유형)
 - 기본영역에 빈도가 가장 높은 4월과 6월 포함
 - 가중영역의 상한은 특별 조정의 여지를 남겨 둠(이하 동일)
- 3호 음주운전(2유형)
 - 통계상 6월, 8월이 전체의 78.3% → 기본영역에 포함
- 2호 음주운전(3유형)
 - 통계상 최빈값인 12월이 기본영역에 포함
- 1호 음주운전(4유형)
 - 통계상 최빈값이 12월이지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이라 기본영역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움
 - 통계상 징역 1년~2년에 몰려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규범적 조정을 가함
- 음주측정거부(5유형)
 - 통계상 최빈값인 12월이 기본영역에 포함
 - 위험운전 치상[법정형 징역 1년 ~ 15년(감경: 6월 - 1년6월 / 기본: 10월 - 2년6월 / 가중: 2년 - 5년)]과 역전이 생기지 않아야 함

(2)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 견해 일치

(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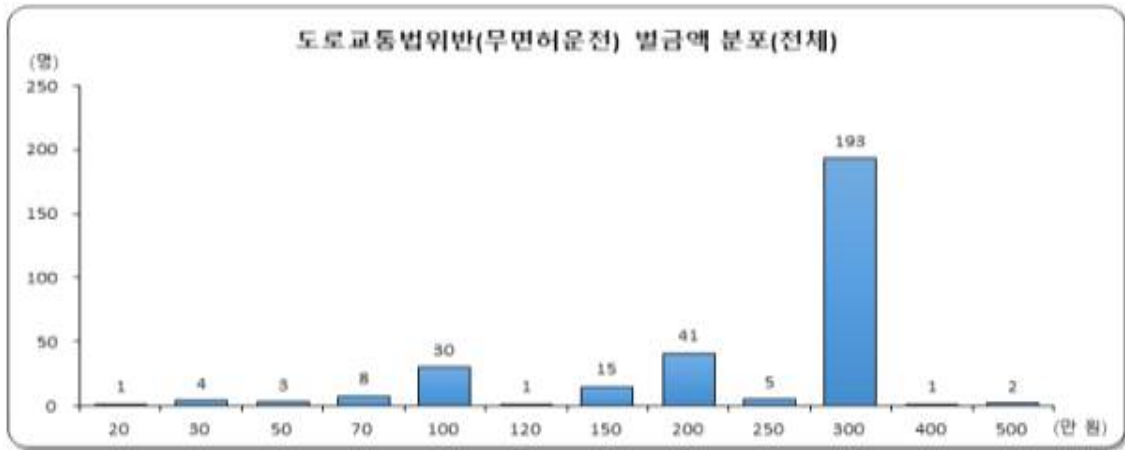
- 무면허운전

단위: 명, %, 만 원

선고 연도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20	30	50	70	100	120	150	200	250	300	400	500		
2019년	수	-	1	-	2	13	-	9	16	-	73	-	2	116	249.31
	비율	-	0.9	-	1.7	11.2	-	7.8	13.8	-	62.9	-	1.7	100.0	
2020년	수	1	2	-	2	8	-	2	13	3	66	-	-	97	252.27
	비율	1.0	2.1	-	2.1	8.2	-	2.1	13.4	3.1	68.0	-	-	100.0	
2021년	수	-	1	3	4	9	1	4	12	2	54	1	-	91	237.14

단위: 명,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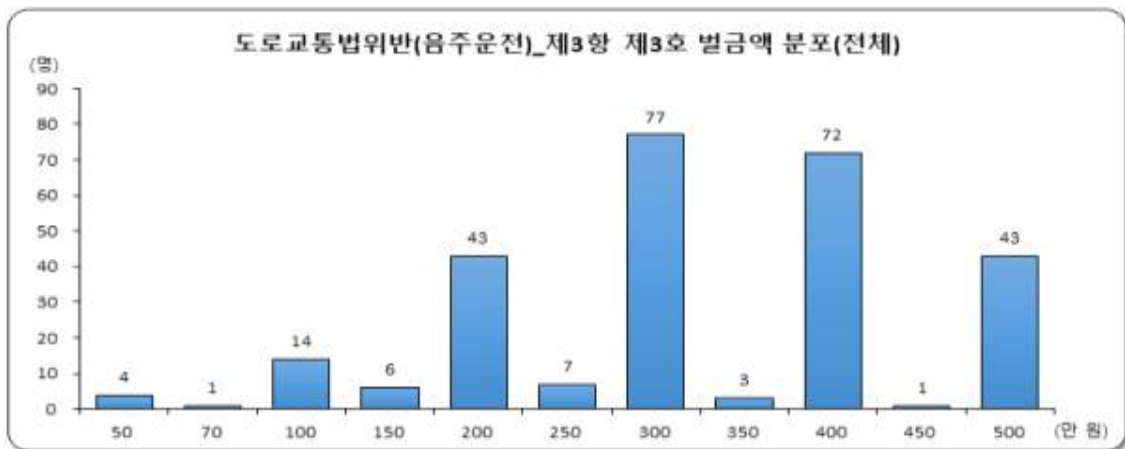
선고 연도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20	30	50	70	100	120	150	200	250	300	400	500		
	비율	-	1.1	3.3	4.4	9.9	1.1	4.4	13.2	2.2	59.3	1.1	-	100.0	
전체	수	1	4	3	8	30	1	15	41	5	193	1	2	304	246.61
	비율	0.3	1.3	1.0	2.6	9.9	0.3	4.9	13.5	1.6	63.5	0.3	0.7	100.0	



○ 3호 음주운전

단위: 명,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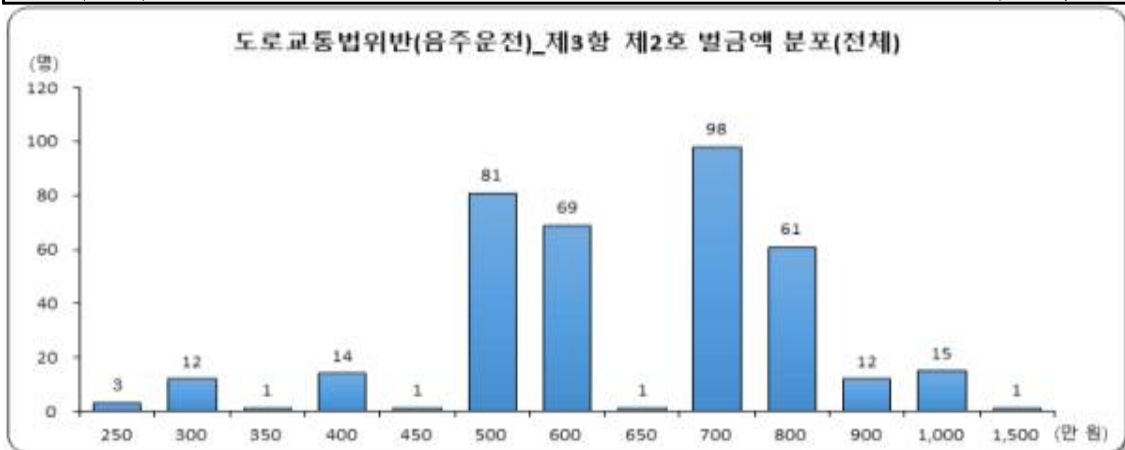
선고 연도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50	7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2019 년	수	1	-	1	-	4	-	4	1	2	-	1	14	271.43
	비율	7.1	-	7.1	-	28.6	-	28.6	7.1	14.3	-	7.1	100.0	
2020 년	수	2	1	10	2	22	3	41	2	35	1	12	131	305.88
	비율	1.5	0.8	7.6	1.5	16.8	2.3	31.3	1.5	26.7	0.8	9.2	100.0	
2021 년	수	1	-	3	4	17	4	32	-	35	-	30	126	348.81
	비율	0.8	-	2.4	3.2	13.5	3.2	25.4	-	27.8	-	23.8	100.0	
전체	수	4	1	14	6	43	7	77	3	72	1	43	271	324.06
	비율	1.5	0.4	5.2	2.2	15.9	2.6	28.4	1.1	26.6	0.4	15.9	100.0	



○ 2호 음주운전

단위: 명,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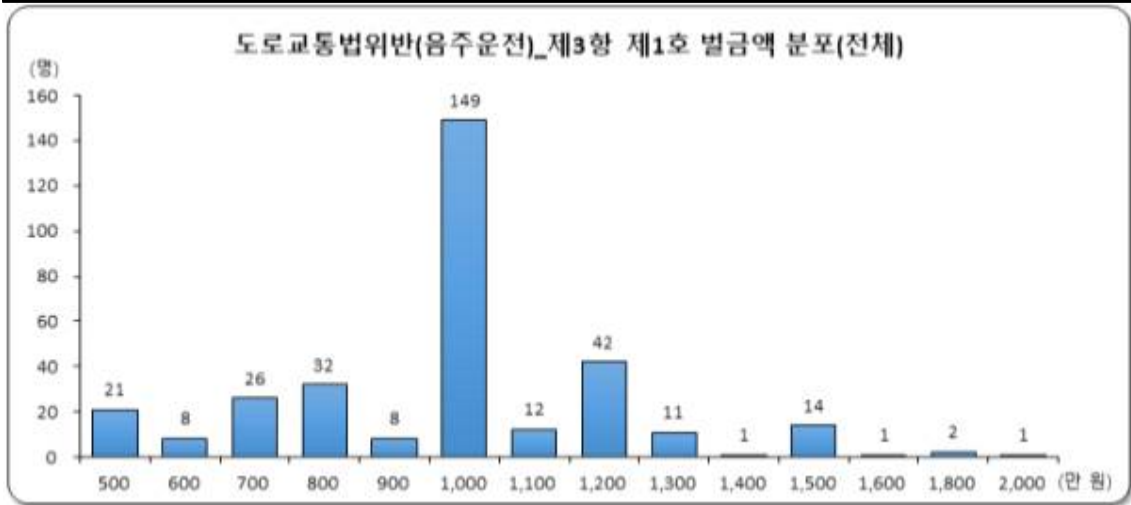
선고 연도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250	300	350	400	450	500	600	650	700	800	900	1,000	1,500		
2019 년	수	-	1	-	-	-	5	5	-	7	4	-	-	-	22	631.82
	비율	-	4.5	-	-	-	22.7	22.7	-	31.8	18.2	-	-	-	100.0	
2020 년	수	1	6	-	9	-	42	37	-	55	26	5	5	-	186	632.53
	비율	0.5	3.2	-	4.8	-	22.6	19.9	-	29.6	14.0	2.7	2.7	-	100.0	
2021 년	수	2	5	1	5	1	34	27	1	36	31	7	10	1	161	661.18
	비율	1.2	3.1	0.6	3.1	0.6	21.1	16.8	0.6	22.4	19.3	4.3	6.2	0.6	100.0	
전체	수	3	12	1	14	1	81	69	1	98	61	12	15	1	369	644.99
	비율	0.8	3.3	0.3	3.8	0.3	22.0	18.7	0.3	26.6	16.5	3.3	4.1	0.3	100.0	



○ 1호 음주운전

단위: 명,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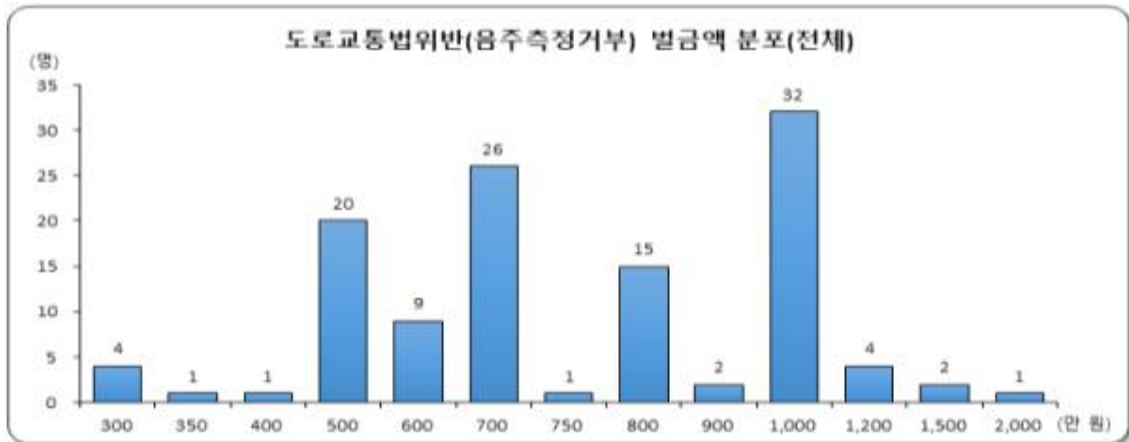
선고 연도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800	2,000		
2019 년	수	7	1	3	3	1	13	2	6	2	-	1	-	-	-	39	923.08
	비율	17.9	2.6	7.7	7.7	2.6	33.3	5.1	15.4	5.1	-	2.6	-	-	-	100.0	
2020 년	수	10	3	12	17	5	68	5	14	4	1	3	1	-	-	143	953.15
	비율	7.0	2.1	8.4	11.9	3.5	47.6	3.5	9.8	2.8	0.7	2.1	0.7	-	-	100.0	
2021 년	수	4	4	11	12	2	68	5	22	5	-	10	-	2	1	146	1,030.82
	비율	2.7	2.7	7.5	8.2	1.4	46.6	3.4	15.1	3.4	-	6.8	-	1.4	0.7	100.0	
전체	수	21	8	26	32	8	149	12	42	11	1	14	1	2	1	328	984.15
	비율	6.4	2.4	7.9	9.8	2.4	45.4	3.7	12.8	3.4	0.3	4.3	0.3	0.6	0.3	100.0	



○ 음주측정거부

단위: 명, %, 만 원

선고 연도		벌금액(만 원)														전체	평균
		300	350	400	500	600	700	750	800	900	1,000	1,200	1,500	2,000			
2019 년	수	1	-	-	3	3	-	-	1	-	1	-	-	-	9	600.00	
	비율	11.1	-	-	33.3	33.3	-	-	11.1	-	11.1	-	-	-	100.0		
2020 년	수	1	1	1	10	4	13	-	8	1	16	2	1	-	58	771.55	
	비율	1.7	1.7	1.7	17.2	6.9	22.4	-	13.8	1.7	27.6	3.4	1.7	-	100.0		
2021 년	수	2	-	-	7	2	13	1	6	1	15	2	1	1	51	818.63	
	비율	3.9	-	-	13.7	3.9	25.5	2.0	11.8	2.0	29.4	3.9	2.0	2.0	100.0		
전체	수	4	1	1	20	9	26	1	15	2	32	4	2	1	118	778.81	
	비율	3.4	0.8	0.8	16.9	7.6	22.0	0.8	12.7	1.7	27.1	3.4	1.7	0.8	100.0		



(나) 검토

▣ 벌금형 영역의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법정형
1	무면허운전		- 8월	6월 - 10월	1년↓/ 300만 원↓
2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8월	6월 - 10월	1년↓/ 500만 원↓
3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8월 - 1년4월	1년 - 1년10월	1년↑2년↓/ 500만 원↑ 1,000만 원↓
4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2% 이상)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년↑5년↓/ 1,000만 원↑ 2,000만 원↓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8월 - 2년	1년6월 - 4년	1년↑5년↓/ 500만 원↑ 2,000만 원↓

- 권고영역이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벌금형의 선택을 권고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징역형의 권고 형량이 높지 않고 벌금형으로도 책임에 비례한 형벌 부과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도 권고함 → 1유형 내지 3유형은 4유형(1호 음주운전), 5유형(음주측정거부)에 비해 다소 가벼우므로 가중영역에도 벌금형 중첩 설정하고, 4유형, 5유형의 가중영역은 징역형 권고

○ 형종 선택 관련 서술식 기준을 둠 → 이하 3.에서 검토함

■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2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3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4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500만 원	2년6월 - 4년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4년

○ 무면허운전(1유형)

- 법정형(300만 원 이하)에 맞게 각 영역에 설정
- 선거범죄의 경우 무면허운전보다 법정형이 중합에도 감경영역의 형량범위(30만 원 - 90만 원)가 낮게 설정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당선유무효에 관한 범죄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임

○ 3호 음주운전(2유형)

- 법정형(500만 원 이하)에 맞게 각 영역에 설정
- 무면허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그 형량범위보다 약간 높게 설정

○ 2호 음주운전(3유형)

- 법정형(500만 원 ~ 1,000만 원)에 맞게 각 영역에 설정

- 3호 음주운전보다 범정형이 높으므로 그 형량범위보다 약간 높게 설정
- 1호 음주운전(4유형)
 - 범정형(1,000만 원 ~ 2,000만 원)에 맞게 감경, 기본영역에 설정
 - 2호 음주운전보다 범정형이 높으므로 그 형량범위보다 약간 높게 설정
- 음주측정거부(5유형)
 - 범정형(500만 원 ~ 2,000만 원)에 맞게 감경, 기본영역에 설정
 - 어린이 교통사고(범정형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와 형량범위 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 교통사고[감경영역(300만 원 ~ 1,500만 원)만 설정되어 있음]보다 약간 낮게 설정

3. 서술식 기준 검토

가. 교통사고(대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2)

(1)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벌금형 선택 사유에 포함할지 여부

⇒ 견해 대립

(가) 문제의 소재

- 대상: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대유형1 중유형 가의 소유형1),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가의 소유형2), 위험운전 치상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나의 소유형1), 어린이 치상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다의 소유형1),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대유형2의 소유형1)
- 위 각 영역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사유로 포함할지 여부

(나) 논의 결과

- ❶ 제1안(7인): 제외

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 (중략) ...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어린이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8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10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에 불과한데,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확정된 권고 형량 범위를 무력화하여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 형종 선택의 사유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추가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가 특별양형인자화 되어 버릴 우려가 있음

② 제2안(6인): 포함

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 (중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0월 - 2년6월	2년 - 5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500만 원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어린이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8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10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양형실무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처벌 전력도 형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사고 범죄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인데 가중영역에 해당하

더라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가혹함

(2) 교통사고 치사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벌금형 선택 사유로 포함할지 여부 ⇨ **견해 대립**

(가) 문제의 소재

-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가의 소유형2)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벌금형 선택 사유로 포함할지 여부

(나) 논의 결과

① 제1안(9인): 포함

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제8기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 원칙'에 따라 규정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교통사고 치사 유형에서만 제외시킬 경우 일관성이 떨어지고 실무 혼선 우려
-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거부하여 처벌불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유리한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② 제2안(4인): 불포함

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치상 사고와 달리 치사 사고의 경우, 처벌불원 외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까지 포함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적절한 실질적 피해 회복 내지 공탁금이 얼마인지 불분명함
- 공탁법 개정으로 유족의 동의 없는 공탁이 가능하게 된 점 고려
- 벌금의 법정형 상한이 2천만원으로 가중영역의 징역형의 권고형량 상한 3년과 비교(1년: 1천만원)하여 과경한 처벌 우려

(3) 음주운전 또는 마약투약 결합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할 것인지 여부 ⇨ **견해 대립**

(가) 문제의 소재

- 대상: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대유형1 중유형 가의 소유형1),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가의 소유형2), 위험운전 치상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나의 소유형1), 어린이 치상의 기본영역(대유형1 중유형 다의 소유형1),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대유형2의 소유형1)
-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이 결합된 범행인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나) 논의 결과

① 제1안(9인): 불포함

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 (중략)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어린이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8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10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음주운전 또는 마약투약이 결합된 경우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다보면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번에 음주·무면허운전을 별도 유형으로 신설하였고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존재하므로, 음주운전이나 마약범죄가 결합된 범죄의 경우 다수범죄 가중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음

② 제2안(4인): 포함

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는 제외).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 (중략)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는 제외).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음주운전·마약투약이 결합된 경우는 제외).

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어린이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는 제외).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2	치사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8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10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다만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는 제외).

- 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 치사, 어린이 치상 및 치상 후 도주에서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위험운전 치상에서 음주운전 또는 마약투약이 결합된 경우는 각각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제외사유로 추가

- 음주운전 또는 마약투약이 결합된 경우를 형종 선택에서만 제외
하자는 것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과는 별개임

(4)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인 경우 등에 금고형 권고 ➡ 견해 일치

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중략)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교통사고 치상(1유형)의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 중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을 허용하지 아니함 → 교통사고 치상은 가중영역에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므로, 1유형의 가중영역의 서술식 기준에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벌금형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 있음

나.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1) 형종 선택 기준이 되는 동종 전과 기간의 범위 ➡ 견해 대립

(가) 문제의 소재

- 대상: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중 권고형으로 벌금형이 있는 영역
- 위 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은 반복적 범행이 자주

일어나고 동종 전과가 형종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 있는 경우 징역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음주운전 관련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 2021헌가32, 2022헌가35(병합) 등] 참조

○ 다만 징역형 선택·권고 기준이 되는 동종 전과의 기간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

(나) 논의 결과

① 제1안(7인): 10년 이내

3.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500만 원	2년6월 - 4년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4년

- ▷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10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10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

과(10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2023. 1. 3.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2진 아웃의 처벌 가중요건으로 고려하는 전과의 시적 범위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범죄구성요건'으로 적용되는 전과의 범위보다 '양형'에 참작되는 전과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그 반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고려하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의 시적 범위는 최소 '10년'으로 정함이 타당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23. 1. 3.>

(이하 생략)

- 5년 이내 3회 동종 전과가 나오는 사례는 형사사건 처리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 것으로 보임

② 제2안(6인): 5년 이내

3.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500만 원	2년6월 - 4년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8월 - 2년	1년6월 - 4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00만 원 - 1,000만 원	700만 원 - 1,500만 원	

▷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형종을 제한하는 사유로 동종 전과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10년보다는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동종 전과의 정의규정에 따른 범위를 볼 때 5년 이내 3회의 동종 전과 사례가 아주 드물다고 보기 어려움

[유형의 정의 3. 음주·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위험운전 교통사고(대유형 1 중 중유형 나)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10년 이내 전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정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2) 가중영역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인 경우 등에 징역형 권고 ➡ 견해 일치

3.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500만 원	2년6월 - 4년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4년

▷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 ... (중략) ... 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 0.2%)의 각 가중영역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을 권고하지 아니함 → 1유형 내지 3유형은 각 가중영역에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서술식 기준으로 이 부분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 있음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4유형) 및 음주측정거부(5유형)의 가중영역에서 벌금형 선택 가부 ⇨ **견해 대립**

(가) 문제의 소재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4유형) 및 음주측정거부(5유형)의 가중영역에서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여부

(나) 논의 결과

① 제1안(9인)

3.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500만 원	2년6월 - 4년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4년

▷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양형사례에 비추어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할 필요
☞ 벌금형 선택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양형기준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2% 고속도로 음주운전, 동종 전과 없음 → 벌금 多

- 다만,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 중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벌금형 선택을 허용하지 아니함

② 제2안(4인)

3.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500만 원	2년6월 - 4년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4년

~~▷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음주운전 관련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의 가중영역에서조차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감경·기본·가중영역을 나누고, 특별가중·감경인자를 종합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양형편차에 줄이려는 양형기준의 존재 의의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각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범위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범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이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형량범위를 잠탈하는 규정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교통사고 치상의 모든 유형 각 가중영역에서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서술식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의 가중영역에서도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 음주 교통사고의 다수범죄 처리를 하더라도 각 가중영역에서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에 미흡

4. 양형인자 검토

가. 제1유형(교통사고)

(1) 일반 교통사고

(가) 특별가중인자

①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삭제 ⇨ 견해 일치

- 현행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유형을 신설하여 다수범죄로 취급하므로 삭제함이 타당

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로 수정 ⇨ 견해 일치

- 양형인자 명칭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 양형인자 명칭에서 '8호 제외' 부분은 삭제하고 정의규정으로 이동
-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및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여 다수범죄로 취급하므로, 이중평가를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의 가중인자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정의규정에 반영함
- 정의규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는 제외한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③ '피해자가 5명 이상인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추가 여부 ⇨ **견해 대립**

① 제1안(11인): 불포함

- 교통사고 범죄에서 하나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피해차량에 피해자가 몇 명이 있는지는 우연적인 요소인데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피해자별 피해 정도 역시 천차만별일 수 있음

② 제2안(2인): 특별가중인자로 포함

- 하나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법익의 침해(결과불법)가 가중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특별가중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검찰사건처리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숫자에 따라 구형량에 가중을 하고 있음

(나) 특별감경인자

① 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수정 ⇨ **견해 일치**

- 2020. 12. 8. 형법 제11조 개정

②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수정 ⇨ **견해 일치**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5)

- 다음 표 중 1-1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이 수정

구분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일반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만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 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일반가중인자

5) 2021. 8. 17. 제111차 양형위원회, 2021. 10. 8. 제112차 양형위원회 의결 내용

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견해 일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및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여 다수범죄로 취급하므로, 이중평가를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 범죄의 가중인자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정의규정에 반영함

○ 정의규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②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으로 수정 ⇒ 견해 일치

■ 전과 범위를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으로 제한

■ 동종 전과의 정의 수정

○ 현행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

- 음주·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는 질적으로 다른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 전과는 교통사고에 동종 전과로 반영되기 어려움 → 동종 전과의 범위 교통사고 범죄로 한정함이 타당

○ 수정안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1, 2)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

③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견해 일치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름
 - 처벌불원이 감경인자로 있는 경우 대부분 일반가중인자에 포함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라) 일반감경인자

①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수정 ⇨ 견해 일치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름

②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견해 대립

① 제1안(8인): 일반감경인자로 유지

- 가해자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양형인자로 규정하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하였음
- 일반감경인자로서 예시적인 규정이므로 포함시켜도 무방함

② 제2안(5인):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취지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일반감경요소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

- 검찰사건처리기준에서는 오히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가중요소로 규정함

③ 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규정 추가 → 견해 일치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종합(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가.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4월 - 1년 500만 원- 1,200만 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 원- 1,500만 원	8월 - 2년	1년 - 3년

※ 금고형

-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일반 양형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위험운전 교통사고

(가) 양형인자 개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양형인자 및 정의규정 수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정의규정 수정, ‘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용어 수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전과 관련 양형인자 및 정의규정 수정,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규정 추가는 앞서 검토한 결과와 동일함 ➡ 견해 일치

- 특별가중인자로 ‘피해자가 5명 이상인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추가 여부 ⇨ 견해 대립

- 제1안(11인): 불포함
- 제2안(2인): 특별가중인자로 포함

○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삭제 여부 ⇨ 견해 대립

- 제1안(8인): 일반감경인자로 유지
- 제2안(5인):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

(나) 종합(위험운전 교통사고)

1. 교통사고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6월 7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	--

(3) 어린이 교통사고

(가) 양형인자 개요

- 양형인자 논의는 일반 교통사고,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유형의 논의와 동일함
- 특별가중인자로 '피해자가 5명 이상인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추가 여부 ⇨ 견해 대립
 - 제1안(11인): 불포함
 - 제2안(2인): 특별가중인자로 포함
-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삭제 여부 ⇨ 견해 대립
 - 제1안(8인): 일반감경인자로 유지
 - 제2안(5인):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

(나) 종합(어린이 교통사고)

1. 교통사고

다.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어린이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제2유형(교통사고 후 도주)

(1) 양형인자 개요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삭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양형인자 및 정의규정 수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정의규정 수정, '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용어 수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전과 관련 양형인자 및 정의규정 수정, 진지한 반성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의규정 추가 등은 앞서 본 논의와 같음 ⇨ **견해 일치**
- 특별가중인자로 '피해자가 5명 이상인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추가 여부 ⇨ **견해 대립**
 - 제1안(11인): 불포함
 - 제2안(2인): 특별가중인자로 포함
-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삭제 여부 ⇨ **견해 대립**
 - 제1안(8인): 일반감경인자로 유지
 - 제2안(5인):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

(2) 종합(교통사고 후 도주)

2.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 원 - 1,500만 원	8월 10월 - 2년6월	1년 - 5년 2년 - 6년
2	치상 후 유기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년6월 - 4년	3년 - 5년 6년	4년 - 8년 5년 - 10년
4	치사 후 유기도주 (유기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7년	5년 - 10년 6년 - 12년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제3유형(음주·무면허운전)

(1) 특별감경인자 ⇨ 견해 일치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교통사고 후 도주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는 점, 양형실무 등을 고려하여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함

(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주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등 주행거리가 짧은 경우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낮으므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함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중복 적용의 여지를 없앴

(다) 청각 및 언어 장애인/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대부분의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에 관한 서술식 기준 필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특별가중인자 ⇨ 견해 일치

(가)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참작함
-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해당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불법을 평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이중평가를 피하기 위해 가중인자 적용 배제

(나)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순히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안과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안을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불법을 평가하게 되므로, 이중평가를 피하기 위해 가중인자 적용 배제

(다) 동종 누범

- 대부분의 범죄에서 특별가중인자

(라) 동종 전과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교통사고 ×)를 동종 전과에 포함
- 위험운전 교통사고 전과는 음주운전 전과와 동등하게 평가함

○ 정의규정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위험운전 교통사고(대유형 1 중 중유형 나)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3)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견해 대립

① 제1안(10인): 일반가중인자로 규정

- 다른 범죄군의 경우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모두 일반가중인자로 규정하였고,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한 사례는 없음(은폐 시도가 많이 일어나는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그러함)

② 제2안(3인):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 실무상 음주운전 후 적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측정 전 추가로 음주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
- 증거은폐 시도를 억제하고 범행 후 정상이 불량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가중인자로 규정

(4) 종합(음주·무면허운전)

3.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 원 - 150만 원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500만 원	2년6월 - 4년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 원 - 1,000만 원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1년6월 - 4년

- ▷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10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10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10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생계형 범죄(1유형)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

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5. 집행유예 기준⁶⁾ 검토

가.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동종 전과[5/10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아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 금액공탁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6) 금고형·징역형의 집행유예 기준임

(1) 주요참작사유

(가) 동종 전과의 범위 ⇨ 견해 대립

① 제1안(7인): 10년 이내

- 2023. 1. 3.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2진 아웃의 처벌 가중요건으로 고려하는 전과의 시적 범위를 '10년'으로 규정하는 점, 5년 이내 3회 동종 전과가 나오는 사례는 형사사건 처리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10년 이내가 적정함

② 제2안(6인): 5년 이내

- 10년 이내 전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정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다른 범죄군의 집행유예기준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를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가 적정함

(나)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견해 대립

① 제1안(9인): 포함

- 제8기 양형위원회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규정
-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를 거부하여 처벌불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유리한 사유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② 제2안(4인): 불포함

- 처벌불원 외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까지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포함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 또는 유족의 동의 없는 공탁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를 반영할 필요 있음

(2) 일반참작사유

(가) ‘피해자가 5명 이상인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포함 여부 ⇨ 견해 대립

① 제1안(11인): 불포함

- 교통사고 범죄에서 하나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는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피해 차량에 피해자가 몇 명이 있는지는 우연적인 요소인데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피해자별 피해 정도 역시 천차만별일 수 있음

② 제2안(2인): 일반참작사유로 포함

- 하나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법익의 침해(결과불법)가 가중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견해 대립

① 제1안(8인): 일반참작사유로 유지

- 가해자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로 규정

② 제2안(5인): 일반참작사유에서 삭제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취지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일반참작사유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삭제

(3) 집행유예 기준 정비

- ‘피고인이 고령’ 삭제 → 제7기 양형위원회 삭제 의결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수정

- 기존에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부정적 참작사유 → 어린이 교통사고(위험운전 교통사고와 징역형 법정형 동일)도 부정적 참작사유에 추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음주·무면허운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 동종 전과[5/10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 동종 전과의 범위 ⇨ 견해 대립

- 제1안(7인): 10년 이내
- 제2안(6인): 5년 이내

(2)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견해 대립

❶ 제1안(10인): 일반참작사유로 규정

- 다른 범죄군의 경우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모두 일반참작사유로 규정하였고, 이를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한 사례는 없음

❷ 제2안(3인): 주요참작사유로 규정

- 증거은폐 시도를 억제하고 범행 후 정상이 불량한 점을 반영

Ⅲ.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1. 용어 정비

가. 농아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견해 일치

- 2020. 12. 8. 형법 제11조 개정
- 이미 반영되어 있는 범죄군(성범죄,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명예훼손, 주거침입, 환경) 및 이번 개정 대상인 교통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군 수정 필요
- 띄어쓰기: 언어장애인 → 언어 장애인
 - 개정된 것들 사이에 띄어쓰기 불일치하므로, 법문에 맞게 수정
 - 성범죄,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명예훼손 수정

나. 작량감경 → 정상참작감경 ⇨ 견해 일치

- 각 범죄군의 [공통원칙]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에 규정
- 2020. 12. 8. 형법 제53조 개정
- 모든 범죄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통적으로 수정 필요

다. 심신미약

(1) 서술식 기준 ⇨ 견해 일치

-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일정한 범죄의 경우 ‘심신미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술식 기준을 정하고 있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음주 등으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이 문제될 수 있는 범죄군의 경우 일률적으로 위 서술식 기준을 양형기준표에 반영할 필요 있음
- 이미 반영되어 있는 범죄: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업무방해, 손괴,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 → 주로 음주상태에서 폭행 등 소질의 발현이 문제되는 범죄
- 이미 반영되어 있는 범죄 이외 음주 등으로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이 문제될 수 있는 범죄군: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절도, 방화, 성매매, 권리행사방해(이번 개정 대상인 교통범죄 제외)
- 이미 반영되어 있는 범죄 중 업무방해범죄는 위 서술식 기준 가운데 ②항이 생략되어 있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불 특별한 이유 없으므로 위 ②항을 추가하여 위 서술식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

(2) 강도범죄에 심신미약 서술식 기준 추가 여부 ⇨ 견해 대립

① 제1안(11인): 포함

- 만취상태에서 범죄 가능성이 있어 심신미약 감경 여부가 문제되는 범죄이므로 포함

② 제2안(2인): 불포함

- 2020년 통계에서 전체 범죄 중 주취자 범죄비율이 약 15%인데 강도범죄 중 주취자 범죄는 9%에 불과하여 평균치에 미치지 못함. 따라서 설정 필요성이 미미함

2. 정의규정 수정 및 추가

가. 진지한 반성 ⇨ 견해 일치

- 수정 대상 범죄: 위증·증거인멸범죄 중 위증, 무고범죄

■ 현행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정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정안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특별감정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위 수정 대상 범죄와 이미 반영되어 있는 범죄군(성범죄,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명예훼손, 주거침입) 및 이번 개정 대상인 교통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진지한 반성 정의규정 다음과 같이 추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 및 마약범죄는 ‘진지한 반성’이 양형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부분에 정의규정 기재

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정의규정 정리 ⇨ 견해 일치

- 이미 반영되어 있는 범죄군(성범죄,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 환경) 및 이번 개정 대상인 교통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정의규정을 다음과 같이 추가

■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예: 환경범죄)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추가 대상 범죄의 구분

(가)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견해 대립

① 제1안(9인): 피해자 있는 범죄로 분류

- 채권추심법위반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분류되어야 함

② 제2안(4인):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

- 대부업법위반은 피해자 없는 범죄로 피해자와 관련된 양형인자가 없음

(나) 무고 ⇨ 견해 대립

① 제1안(7인): 피해자 있는 범죄로 분류

- 무고범죄는 일반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두고 있음

② 제2안(6인):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

- 무고범죄는 국가·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임

(다) 그밖의 범죄의 분류 ⇨ 견해 일치

구분	범죄군
피해자 有	살인 / 강도 / 횡령·배임 / 약취·유인·인신매매 / 사기 / 절도 / 공무집행방해 / 지식재산권 / 방화 / 배임수증재 / 성매매 / 장물 / 권리행사방해 / 업무방해 / 근로기준법위반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피해자 無	뇌물 / 위증·증거인멸 / 공문서 / 사문서 / 식품·보건 / 마약 / 증권·금융 / 선거 / 조세 / 변호사법위반 / 사행성·게임물 / 석유사업법위반 / 도주·범인은닉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다만, 살인범죄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양형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부분에 정의규정 기재

다. 정의규정의 배치

- 최근 설정된 범죄는 양형인자의 정의에서 대유형별로 목차를 나누고(예: 성범죄 1. 일반적 기준,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겹치는 양형인자의 경우 첫 번째 목차(1. 일반적 기준)의 각주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고 정함
- 현행 양형기준의 정의 가운데 대유형별로 목차를 나누면서도 겹치는 양형인자에서 동일한 내용을 한 번 더 기재한 경우가 있고(예: 뇌물, 위증·증거인멸, 증권·금융, 선거, 조세, 업무방해, 석유사업법 위반,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이는 비효율적이므로 위 최근 설정된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

3. 전과 관련 문구 수정 ⇨ 견해 일치

가. 집행유예 전과를 자유형에 한정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

-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이라는 기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반영되어 있는 범죄군(성범죄, 강도, 마약, 폭력,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 환경) 및 이번 개정 대상인 교통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아래 항과 같이 수정함
- 예시: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 동종 전과(10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동종 전과(10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벌금형 집행유예 반영

- 동종 전과의 범위와 관련하여 벌금 전과의 범위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이미 반영되어 있는 범죄군(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주거침입, 환경) 및 이번 개정 대상인 교통범죄 제외
- 동종 전과의 범위와 관련하여 벌금 전과가 기재되어 있는 범죄: 횡령·배임, 위증·증거인멸, 무고, 사기, 절도,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마약,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선거, 조세,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장물,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사행성·게임물,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피고인이 고령’ 삭제

-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사정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
- 이미 반영되어 있는 범죄군(성범죄, 공갈,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 환경) 및 이번 개정 대상인 교통범죄 제외

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전과의 기간 계산 관련 벌금형 전과도 포함할 필요
 - 동종 전과의 시적범위와 관련하여 벌금형 전과도 기간계산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전과의 범위와 관련하여 벌금 전과가 기재되어 있는 범죄(그 중 이미 반영되어 있는 위증·증거인멸,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거침입, 환경 제외)에 반영

4. 오류 수정 ⇨ 견해 일치

가. 양형인자 및 양형인자의 정의

(1) 배임수증재범죄

- 양형기준(2022) 414쪽 25행 '위 1.의 라.항' → '위 1.의 바.항'

(2)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양형인자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2022년 개정 시 청소년강간이 2유형에 추가되면서 3유형이 4유형으로 이동)

- 양형인자: 윤간(2, 3유형) → 양형인자: 윤간(3, 4유형) (∵ 2022년 개정 시 청소년강간이 2유형에 추가되면서 2, 3유형이 3, 4유형으로 이동)

○ [유형의 정의]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구성요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동법 제7조 제6항은 미수범 처벌규정이므로, 미수범이 포함된다는 것 명시 필요)

(3) 선거, 명예훼손

- 띄어쓰기: '본인책임 없음' → '본인 책임 없음'으로 통일

나. 유형의 정의

■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3유형, 제4유형, 제5유형의 구성요건과 적용법조 표 위에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문구 누락

다. 양형인자의 평가 원칙

- 위증·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도주·범인은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환경: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가 없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됨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망과 관련이 없는데 '유족의'라는 문구가 포함됨
- 손괴: 사망과 관련이 있는데 '유족의'라는 문구가 누락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석유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동종경합의 기준이 3유형까지 있음에도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라고 기재됨 → '이상' 삭제

마. 집행유예 기준

(1) 약취·유인·인신매매

- '범행 후 구호 호송' → '범행 후 구호 후송'으로 수정
 - '호송'은 '죄수나 형사 피고인을 어떤 곳에서 목적지로 감시하면서 데려가는 일'을 말함

-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대유형 4)의 양형 인자표에는 ‘범행 후 구호 후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는 단순 오기로 보임

(2) 선거

- 전과의 기간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데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전과의 기간 계산 기재 → 삭제

IV. 향후 일정

- 일시: 2023. 4. 10. (월) 오후
- 장소: 대법원 404호 회의실
- 안건
 -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 관세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검토

검찰사건처리기준(2022. 6. 개정)

□ 개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음주운전	① 0.03% 이상 0.08% 미만	-300만원	200-400만원	300-500만원
		② 0.08% 이상 0.2% 미만	500-700만원	600-800만원 또는 6월-1년	700-1,000만원 또는 10월-1년6월
		③ 0.2% 이상	1,000-1,200만원 또는 1년6월-2년	1,200-1,500만원 또는 2년-2년6월	2년6월 - 4년
2	음주측정거부		500-900만원	700-1,500만원 또는 10월-2년	1년6월 - 3년
3	재범 이상	① 0.03% 이상 0.08% 미만	200-400만원 또는 -4월	300-500만원 또는 3월-6월	6월-1년
		② 0.08% 이상 0.2% 미만	600-800만원 또는 6월-1년	700-1,000만원 또는 10월-1년6월	1년-2년
		③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포함 재범 ^{b*}	1,000-1,300만원 또는 1년6월-2년6월	1,200-1,700만원 또는 2년-3년	2년6월 - 5년

* '음주측정거부 전력자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측정거부'는 기존 기준 유지(유형3 중 ③), '음주측정거부 전력자의 음주운전'은 재범 이상 음주운전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유형3 중 ① ② ③)

a 재범 :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재범한 경우를 의미함. 당해 사건에서 2회의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에 선행 사건이 초범이더라도 후행 사건은 재범임

b 음주측정거부 포함 재범 : 다음 ①-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측정거부 ②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거부 ③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

별지2

영국의 음주운전 양형기준

시행일: 2017. 4. 24.

- 면허는 12개월 이상 결격을 명하여야 한다.
- 범죄자가 지난 3년간 56일 이상 면허 결격이 2번 이상이면, 2년 이상 면허 결격을 명하여야 한다.
- 범죄자가 지난 10년간 관련 범죄로 유죄를 인정받았으면, 3년 이상 면허 결격을 명하여야 한다.
- 즉시 구금을 부과할 경우, 면허 결격을 연장한다.

유죄선고 후 양형이 지연되면, 임시 면허 결격을 고려한다.

시작점은 유죄 인정이나 전과와 관계없이 모든 범죄자에게 똑같이 적용한다.

알코올 농도			시작점	범위	면허 결격	면허 결격 10년 이내 재범 - 다음 주 참조
호흡 (μ g)	혈액 (ng)	소변 (ng)				
120-150 이상	276-345 이상	367-459 이상	구금 12주	사회명령(상) - 구금 26주	29-36개월 (즉시 구금을 부과하면 연장)	36-60개월
90-119	207-275	275-366	사회명령(중)	사회명령(하) - 사회명령(상)	23-28개월	36-52개월
60-89	138-206	184-274	벌금 C군	벌금 C군 - 사회명령(하)	17-22개월	36-46개월
36-59	81-137	108-183	벌금 C군	벌금 B군 - 벌금 C군	12-16개월	36-40개월

주: 재범일 경우, 개별 사건에서 부과할 면허 결격 기간은 지난번에 제재당하고 지난 시간, 현재 범죄의 무게 등 모든 관련 정황의 평가에 따라야 할 것이나,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한다.